

‘어대명’ ‘친명 경쟁’에 20%대 최저 투표율... 흥행 ‘빨간불’

민주당 호남 전대, 이재명 경쟁상대 없고 이슈 부족에 텃밭 관심 ‘뚝’
최고위원 선거 민형배 약진 ... 호남표심 수도권으로 이어질지 촉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대전’이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전체 전대 흥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의힘이 앞선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에서조차 투표율이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최대 표밭인 서울·수도권에서의 흥행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또한, 호남 경선을 통해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전당대회 누적 지지율 90%대가 무너졌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여기에 치열한 최고위원 후보 경쟁에서 호남 유일의 현역의원인 민형배 의원이 광주·전남에서 의미있는 1위를 하면서 누적 득표율 5위로 올라선 점도 주목된다.

따라서 향후 대선·세종과 경인, 서울 등 남은 지역 시도당 대회에서 민 의원이 최고위원 당선권으로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느냐가 지역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지역 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3.61%를 기록했다. 또 전남 경선에서는 82.48%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로써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90%대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 대표가 된다는 ‘구대명’ (90%대 득표율의 이재명) 기조도 흔들리면서 누적 86.97% (16만542명)를 기록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제주·인천·강원·경북·대구·울산·부산·경남·충남·충북 등지

의 경선에서 8만2992명의 선택을 받아 득표율 90.41%를 기록하며 ‘구대명’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날 경선에서 호남의 투표율은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경선 권리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율은 25.29% (2만6033명), 전남도 23.17% (3만6112명), 앞서 지난 3일 전북지역 경선 당 대표 투표율은 20.28% (3만662명)에 그쳤다.

지난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투표율은 광주 34.18% (3만1495명), 전남 37.52% (6만4273명), 전북 34.07% (5만3682명)였다.

이처럼 호남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전당대회 이슈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손꼽히고 있다. 전당대회 최대 관심인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위협할 후보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서 당원의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또 최고위원 경선도 친명 주자간 대결로 김이 빠진 상태로 전당대회가 시작됐고, 호남 주자들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도 호남 투표를 저하를 부채질했다는 분석이다. 과거 광주·전남·북은 사전 협의의 통해 호남 최고위원 주자를 정하는 등 협력했었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 이후 호남 정치권의 논의 시스템 자체가 사라졌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각기 출마를 결정하는 등 사전 논의 자체가 없었다.

이에 민형배(광주 광산)·한준호(경기 고양)·전주 출생·이성운(전주·컷오프) 의원 등 3명이 자칭타칭 호남 주자로 최고위원 경선에 참여하면서 분열을 자초했다. 결국 이 의원의 컷오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광주 합동연설회가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당대표 후보자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 의원이 광주·전남에서, 한 의원이 전북에서 각각 많은 표를 받았지만 전체 흥행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또한 이들 호남 후보들은 최대 표밭인 수도권에서도 호남표를 나눠 가질 가능성도 커 최종 성적표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민 의원의 측은 이번 ‘호남 대전’을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한 만큼 향후 남은 시도당 대회에서 호남 출신 당원들의 표

집결을 기대해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호남 경선 흥행 참패가 고스란히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경기, 11일 대전·세종, 17일 서울에서 지역 순회 경선을 마친 뒤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당 안팎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출향민이 많아 호남 표심이 30%가량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

고 있다. 이에 호남에서의 저조한 전당대회 성적표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국민의 관심 밖에서 벗어나면서 지지율에 대한 당 안팎의 걱정도 상당하다.

국민의힘은 후보 간 폭로전으로 근육을 치르기도 했지만 전당대회 이후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오광록·김해나 기자 kroh@kwangju.co.kr

양부남 위원장, 두쪽난 광주시당 ‘원팀 복원’ 과제

득표율 65.85%로 경선 승리
지방의원 줄서기 등 타파해야
“힘 합쳐 당원 주권시대 열겠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주당 광주시당 ‘양부남호’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빚어진 폭로·고발전 등 광주 정치권의 갈등을 봉합하고 ‘민주당 원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

4일 신입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양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와 대의원 투표에서 각각 68.88%와 65.51%를 득표해 31.12%, 34.49%를 얻은 강 상임대표를 누르고 차기 시당 위원장에 선출됐다.

투표율은 대의원 78.66%, 권리당원 31.58%였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선거인단 비율은 1대 9로 반영됐다.

양 의원은 이날 수락연설을 통해 “당원 주권 시대

를 명실상부하게 이어가겠다. 그동안 열심히 싸우신 강위원 후보와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광주지역 7명의 국회의원 지지를 받은 데다, 이들 현역 의원들의 막강한 조직을 동원해 세를 키워나갔다. 양 의원은 시당위원장으로 2년 뒤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총지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내 갈등 봉합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아 양 의원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당 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원외 인사와의 흠집 내기·고발전이 잇따른 데다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 속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충돌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 의원이 분열된 지역 정치 구도를 제대로 결합해 야 주국혁신당 등 새로운 세력들이 나설 것으로 보이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시당 위원장 선거는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후보 간 흠집 내기

가 극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 간 비방전이 이어졌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광주 원팀’이 흔들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방위원의 ‘줄 서기’ 구태도 광주시당이 타파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시당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도 시구원들이 나서 양 의원을 지지하면서 줄 서기 구태가 난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지방선거 공천권이 시당 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사전’ 논란이 없게끔 원팀으로 나아가야 민주당이 주창하는 ‘당원 주권 시대’에 걸맞은 시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부남 의원은 “광주시당이 중심이 돼서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의 힘을 모아주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수행적 리더십이 시대적 소명이 됐다”며 “당원 의견을 모으고 정치학교를 만드는 등 당원 주권 시대라는 전방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4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기 당원대회에서 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부남 의원이 민주당기를 흔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공동 (예술의 거리) 근린상가 경매물건

2024년 9월 4일 입찰진행

[3차] 최저가 1,357,333,000원

(유치권 신고는 있으나 유치권 성립여지 없음)

광주동부경찰서 인근으로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됨.
식당, 갤러리, 카페 적합

부동산임의경매 : 2024타경 60825
부동산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 24-2의 6필지

법원감정가 : 2,423,808,600원
토지가격 : 2,044,445,000원 (구 174.2평)
건물가격 : 379,363,600원 (구 101.5평)

상담문의 · 010-6648-0725